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장식 표현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이 정 혜[†] · 김 순 자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 Featured in the Body Decor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Jung-Hye Lee[†] and Soon-Ja Kim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2004. 5. 10. 접수: 2004. 9. 18. 채택)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aesthetic values and sociocultural meanings that reappears in contemporary fashion. In order to analyze aesthetic values and symbolic meanings of body decoration, I examined the concepts and expression methods of the body decoration. Also, analyzed external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and its internal meanings that applied in modern fashion. The expressions of body decoration represented in contemporary fashion are classified into direct and indirect methods. The direct method is expressed by tattoos, piercing, henna, make-up and body painting. And, indirect method is expressed by see-through look, body-conscious look and accessories that were utilized its patterns and the material adaptation methods. Such expression of body decoration in the modern fashion was represented into grotesque images and erotic images. The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images are abnormal state, hateful animal image and distorted or transformed body and the internal meanings are the pursuit of primitive, exoticism, the pursuit of playfulness, and resistance. The characteristics of erotic images are an exposure of body, see through, body-conscious and androgynous look and the internal meanings are the self-intoxication, naturalism and sexual pleasure.

Key words: body decoration(신체장식), tattoo look(타투룩), tattoo(타투).

I. 서 론

신체장식은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며 개인의 자의식을 표현하고 미적 경험과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반영으로서 각 시대에 따른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내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

다.

과학의 비약적인 발달로 소외되고 혼돈에 처한 현대인들은 그 탈출구를 '원시로의 회귀'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도 반영되어 현대 패션에 원시적인 신체장식이 도입되었고 그 세력이 확장되어 오늘날 문신, 피어싱 등의 신체장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현상이 되었으며 패션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됨에 따라 현대 패션을 특징짓는 중요한

[†] 교신저자 E-mail : jhcan@nate.com

요소가 되었다. 특히 서구문화와 달리 보수적인 유교적 신체관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신체장식은 젊음과 축제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패션뿐만 아니라 타 예술영역에까지 표현 영역이 확대되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에 재등장한 원시시대 신체장식의 미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원시 신체장식에 대한 개념과 표현방법을 통해 원시시대 신체장식의 미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외적 표현 특성을 분석하고 그 내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신체장식의 개념과 표현방법

1. 신체장식의 개념 및 기원

1) 신체장식의 개념

신체는 인간의 영혼과 실체를 연결시켜 주는 유기적 존재로서 사회 생활 속에서 자신을 직접 투영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를 대변한다. 또한 신체 표현의 습관들은 특정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던 원시사회에서 신체장식은 친밀하지 않은 다른 민족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¹⁾ 이처럼 신체장식은 개인의 자의식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반영으로서 각 시대에 따른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내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2) 신체장식의 기원

복식이란 의상과 장식의 모든 품목 즉, 화장, 문신, 머리염색, 머리장식, 보석장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²⁾ 따라서 신체장식의 기원은 복식의 기원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복식은 단순한 기능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복잡한 원인으로 성립되는 다원성을 가진다. 이 중 특히 많은 학자들은 신체 장식의 욕구를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식이란 고도의 정신적, 심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예술이며 따라서 인간 그 자체라고 보기 때문이다.³⁾ 인간의 이러한 장식욕은 상징의 의미로서 지배자의 지위나 역량을 나타내거나 종족의 주체성 및 동일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자연 속에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지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에서 신체적 가치를 높이거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해지기도 했으며 성적 매력을 더해 주어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장식하기도 했다.⁴⁾ 그리고 두려운 자연과 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는 보호와 기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2. 신체 장식의 표현방법

신체 장식의 표현방법으로는 문신, 상흔, 신체 왜곡이나 변형, 헤너, 바디페인팅 등의 방법이 있다.

1) 문신

문신이란 피부의 과열부분에 물감을 새겨 넣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한 표식이나 도안으로 입묵(入墨)·자문(刺文)이라고도 하고 때때로 반흔문신⁵⁾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문신은 피부색에 따라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피부색이 아주 짙은 종족에서는 상흔(傷痕)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이 이용되고 피부색이 옅은 종족에서는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의 문신이 행해진다.⁶⁾

문신이라는 용어는 제임스 쿡이 1769년 타히티 탐험일기에 기록한 이후 영국과 그 외 유럽어 사용권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그 후 문신을 한 인디언들과 폴리네시아인들, 해외에서 문신을 한 유럽인들이 18,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보여져 많은 사람들

1) Victoria Ebin, *신체장식*, 임숙자 역 (서울: 경춘사, 1988), p. 6.

2) 마릴린 훈, 루이스 구렐, *외부: 제 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1991), p. 19.

3)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8), p. 78.

4) 유영옥,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1994), p. 14.

5) 반흔 문신(cicatrization) : 상흔문신의 하나로, 살을 베어 흠집을 낸 다음,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생기는데, 이것을 반흔 문신이라고 한다.

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0권* (서울: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2001), pp. 591-592.

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죄인과 노예들에게 문신을 새겨 넣었기도 하였으며 19세기에는 감옥에서 풀려난 미국의 죄수들과 영국의 탈영병들에게 문신을 해 그들의 전력을 나타내기도 했다. 19세기말에는 영국의 상류사회에서도 문신이 잠시나마 유행했으며 20세기에는 노상강도나 오토바이 갱들이 문신을 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스도교 출현 이후 "죽은 자를 위해 너희는 삶을 배지 말며, 봄에 어떤 무늬도 그리지 말라"(레위 19:38)라는 성서구절처럼 종교적 이유로 유럽에서는 문신이 금지되기도 하였고 한때 유럽·미국식과 일본식의 문신과 특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수용과 거부의 반복된 순환을 거친 문신은 반사회적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재평가되었다. 이 시기는 히피, 스킨헤드 등과 같은 반사회적 하위문화 그룹들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던 때로서 당시의 젊은이들은 문신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반항심을 표현하고 동료들과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문신은 안티 패션적 특성을 지닌 요소로 스트리트 스타일에 도입되었고 이후 스트리트 스타일이 하이 패션으로 유행됨에 따라 문신도 하이 패션의 한 요소로 도입되었다.⁷⁾

2) 피어싱

피어싱(Piercing)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뚫는다'라는 뜻으로 장식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신체 일부를 뚫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컷볼, 코, 입술, 혀, 배꼽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행해지고 피루색이 어둡거나 문신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피어싱 장식이 많이 나타났는데, 남성이나 여성들이 더욱 관능적으로 보이기 위해 유두나 복부를 관통하여 금속을 달거나 성기를 뚫어 부거운 것을 달아 길이를 확장하고 뚫어진 구멍을 점점 더 크게 넓혀가기도 하였다. <그림 1>은 모리셔스 여인의 입술에 은검(銀劍)을 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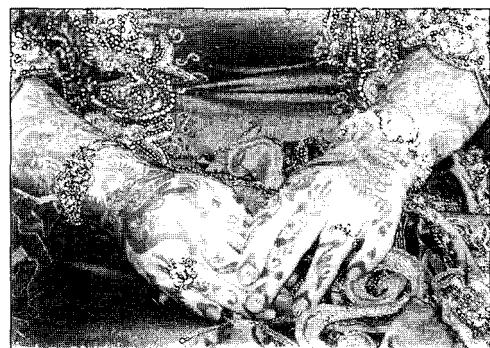
<그림 1> 모리셔스 여인의 입술 피어싱.

습으로 건강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이다.

3) 헤너

헤너(Henna)란 식물의 잎을 건조한 후 뿜아서 그 분말가루로 손과 발등에 그려 장식하는 것으로 염색의 일종이다. 주로 더운 지방의 이란,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말레이시아까지의 많은 국가에서 헤너를 사용하며 그것의 명칭 또한 다양하여 아랍어로 '헤너', 인도어로는 '멘디'라 불려진다.

헤너의 디자인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은 건강한 육체, 풍요로움, 지혜로움, 방어, 정신적 교화 등과 같이 각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림 2>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꽃 문양 헤너 장식으로 일종의 관례처럼 사용되었고 여성의 다른 행사 때에도 화장품처럼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치료의 목적으로 악마와 질병을 쫓아내는 신



<그림 2> 결혼을 준비하는 인도 여인의 헤너 장식.

7) 윤성혜, 유영선, "복식에 나타난 타투 룩(Tattoo Look) 패션의 표현 특성," 복식 51권 3호 (2001), p. 90.

비스러운 것으로 사용되었다.⁸⁾

Ⅲ. 현대 패션과 신체장식 표현

1. 현대 패션의 신체장식 표현 발생의 배경

현대 패션에 원시 신체장식이 재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인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의식 변화, 다문화 현상, 신자연주의, 개인 취향의 존중,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1) 신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

20세기는 이성 중심의 사회로 인간 내부의 욕망과 감성들을 철저히 억압한 시대였다. 따라서 욕망과 감성의 모태였던 신체를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왔고 머리로 상징되는 정신의 위대성만이 인정받던 시대였다.⁹⁾ 이처럼 억압되었던 신체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 의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는 매개체로서 자유로운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0세기말에 와서 신체는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서도 수용되어 노출 패션으로 나타나고 노출된 피부에 다양한 신체장식을 하게 되었다.

2) 다문화 현상

서양 지배 문화 중심의 세계화에 따라 문화가 동질화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민족적, 지역적, 특수주의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다 균형 있고 폭넓게 보려는 태도를 가지며 지배민족문화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다. 다문화주의가 상징하는 문화는 특정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산물이다.¹⁰⁾ 또

한 현대 정보사회의 전세계 네트워크화로 인한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은 이러한 다문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다문화 현상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요소들을 한 데 부어 놓은 국적 불명의 이미지의 표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로 흑인 문화, 동양 문화¹¹⁾ 등 다양한 지역적 모티브를 가진 이국적 이미지의 신체장식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3) 신자연주의

현대는 가치관이 다원화되어 혼란스러우며 문화가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소외감과 자아실현에 대한 갈망의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갖는 소외감이나 순수성의 상실,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자연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²⁾

신자연주의는 또한 보편적인 이성, 이성 중심적 형이상학의 진리관, 고정되고 절대적이며 일원적인 종래의 사고를 거부하고 확립적이고 전체주의적 지배구조에 의해 억압되었던 것들의 복귀현상이며, 이로 인해 그 동안 무시되거나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개념들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패션에서의 신자연주의의 영향은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 및 절충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동양이나 아프리카 혹은 구미지역 전통복식의 재해석을 통하여 패션에서 에스닉 룩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에스닉 패션의 이미지는 이들 다양한 나라의 염색, 패턴, 악세사리 등에서 영감을 얻은 모티브와 디자인, 색상들로 표현되며 특히 원시의 신체장식을 사용함으로써 잘 표현된다.

4) 개인취향의 존중

오늘날 복식의 아름다움은 미적 요소나 원리에

8) 이승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22-24.

9) 이거룡,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서울: 한길사, 1999).

10) Geert Hofstede,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나온영 역 (서울: 학지사, 1996), p. 337.

11) 이인선,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94-97.

12)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64.

13) 최혜정, 임영자,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2호 (2001), p. 156.

근거한 개관적인 미보다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미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다양화된 취향이 공존하고 있다.¹⁴⁾

또한 현대의 패션은 인체의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인체를 패션의 소재로 받아들여 자기 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 본연의 모습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체 노출을 통해 인체의 자연적인 모습을 표현하며 개인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노출패션은 적극적인 자아의 표현이자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출패션의 노출된 신체를 장식함으로써 신체장식이 없어서는 안 될 패션의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5) 기술의 발달

다원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의 영향 이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체장식에 관심을 갖고 표현을 시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신체장식이 간편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신의 경우 과거에는 문신을 새기기 위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한번 새긴 문신은 다시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문신이었지만 최근에 의학 기술의 발달로 흔적 없이 지울 수 있는 문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일회용 문신과 스티커식의 문신으로 자유로운 개성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체에 상처를 가하는 피어싱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커다란 고통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항생제 효과도 상처로 인한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2. 현대 패션의 신체장식 표현 방법

1) 직접적 표현

(1) 문신

현대 패션에서의 문신은 20세기 중반 스트리트

스타일을 통해 도입된 이후, 스트리트 패션의 한 영역으로서 대중화되었다. 이후 20세기말부터 문신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복식에 응용됨으로써 문신은 의미뿐만 아니라 그 종류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현대의 문신은 장식적인 의미가 강하며, 개인의 취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신의 문양은 하트, 나비, 각종 기하학적 문양, 전갈, 용, 해골, 천사, 문자 등 다양하며 미용범으로서 눈썹에 문신을 하기도 하며 눈이나 입술선에도 문신을 한다.

이처럼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나 표현의 도구가 아닌 자기충족 욕구와 독특한 개성 표현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폭넓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¹⁵⁾(그림 3) 문신의 문양 또한 패션 트렌드나 또는 컨셉에 맞추어 여러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고 방법과 아이디어 면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2) 피어싱

현대에 접어들며 피어싱의 유행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히피족에서부터였다. 반전운동이 확산되던 시절, 젊은이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몸의 고통을 피어싱으로 표현하기



〈그림 3〉 개성 표현의 문신.

14) 최수아,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50.

15) 이효진,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4호 (1999), p. 67.

시작하였다. 이후 게이들과 사도메저키즘 단체들에 의해 발전하고 널리 알려졌으며 영국에서의 핑크 패션에서 또한 과장된 메이크업, 미러업색 등과 함께 파괴적인 양상으로 사회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저항성의 표현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피어싱은 하층문화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다가 피어싱을 위한 장신구를 파는 가게가 생겨나기도 하면서 점점 대중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피어싱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모임도 형성되었다. (그림 4)

피어싱이 주로 행해지는 부위는 귀, 배꼽, 눈썹, 혀, 아랫입술 등이며 피어싱용 장신구는 두께가 1~2mm에서부터 10mm가 넘는 링이나 막대모양의 것들이 있다.

(3) 헤너

현대 패션에서 헤너는 노출패션의 장식적인 용도로서의 미적 기능을 가지며, <그림 5>와 같이 손, 팔, 다리, 발, 목, 배 등의 곡부에 주로 장식되고 있다. 헤너는 <그림 6>처럼 에어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장식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나비, 꽃, 하트 등 단순하면서



<그림 4> 피어싱의 대중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구적 장식인 문신과 달리 피부를 뚫는 고통이 없으며 단지 피부의 결을 염색하여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손쉽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메이크업과 바디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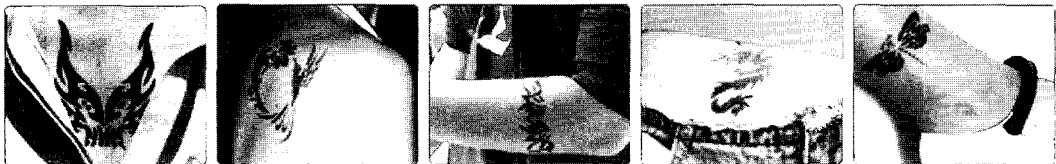
문신을 이용한 메이크업은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감성과 상상력을 맘껏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간을 표현하는 도구로 광범위한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메이크업에 문신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이후, 컬렉션에서는 <그림 7>과 같이 모델의 얼굴에 마치 특정 문양의 문신을 새긴 듯한 메이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메이크업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스트리트 스타일의 바디 페인팅이 안티 패션의 성격을 띤 일회성의 신체장식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재료도 타투 펜, 바디페인팅용 물감, 반짝이 등 다양하게 시



<그림 6> 헤너 에어브러쉬 방법.



<그림 7> 컬렉션에 등장한 모델의 문신 메이크업.



<그림 5> 헤너 장식 부위.

도되면서 더욱 대담한 연출이 가능해졌다.¹⁶⁾

바디페인팅은 1960년대에 나타난 전위적인 예술 활동의 하나로 특유의 자유로운 구성과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대 미술에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표현의 세계가 바로 인간 그 자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¹⁷⁾(그림 8)

2) 간접적 표현

(1) 시-쓰루(see-through) 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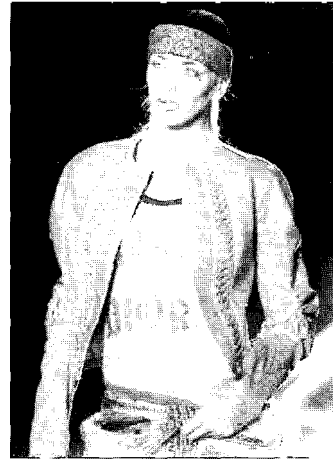
시-쓰루 룩은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의 투시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누드 룩 혹은 배어(bare) 룩이라고도 하며 원시 신체장식에 사용되던 문양이나 장식이 시-쓰루 소재에 모티브로 표현된다. <그림 9>는 비치는 소재의 브랜드명이 마치 몸에 실제 문신을 새긴 것 같은 효과를 보인다.

(2) 바디 컨셔스(Body-conscious) 룩

바디 컨셔스 룩은 신축성 있는 소재로 신체에 밀착되는 실루엣을 만드는데 특히 신축성이 좋으면서 투명한 직물일 경우 직물에 사용된 모티브가 인체에 밀착됨에 따라 실제 신체장식을 한 것 같은 시각적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림 8> 예술적 표현의 바디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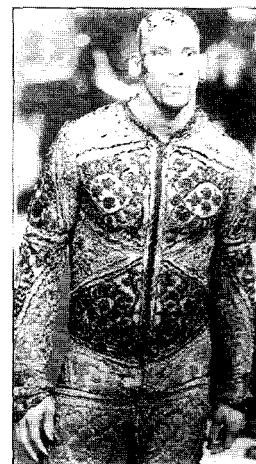
<그림 9> 브랜드 명을 새긴 듯한 시-쓰루 룩.

또한 신체가 움직일 때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문양이 움직여 그 효과를 높이게 된다. <그림 10>은 남성의 신체 전체를 감싸는 원시 부족 문신 문양의 바디 컨셔스 룩으로 신체에 직접 문신을 한 듯하다.

(3) 악세사리의 사용

원시의 신체장식은 현대패션에 악세사리화 되어 장식되기도 한다.

상식은 근본적으로 빈 공백을 배우고 싶어하는 감정인 공백공포(空白恐怖, horror vacuity)로 인한 행



<그림 10> 바디컨셔스에 의한 문신효과.

16) 윤정혜, 유영선, *Op. cit.*, p. 95.

17)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1996), pp. 234-235.

동으로¹⁸⁾ 현대에 노출 패션이 유행을 하면서 신체의 노출부위가 확대되어 악세사리의 사용이 많아지게 되고 원시부족의 신체장식을 사용하여 악세사리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림 11>은 나비 문양의 문신을 목걸이처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인공적인 장신구의 사용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인체에 직접 패턴팅하여 악세사리 효과로 사용한 것으로 목걸이 외에 팔찌, 반지, 발찌 등 다양한 부위에 장식되고 있다. <그림 12>는 버마 고지대 카렌 부족의 파다웅(Padaung)¹⁹⁾형이 단순화된 것으로 원시부족의 장식을 현대적인 감각의 악세사리로 사용한 것이다.



<그림 11> 목걸이 효과의 문신.



<그림 12> 현대적 감각의 악세사리.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장식 표현의 미적 가치

1. 그로테스크

1) 그로테스크의 개념

그로테스크란 원래 식물, 동물, 인간, 공상 속의 동물 등이 환상적으로 서로 얽혀서 결합되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보여지는 고대 장식의 특정한 형식을 일컫는 것이며, 동굴 발굴의 의미를 지닌 이탈리아어 그로테(grotte)에서 유래하였다.

필립 톰슨(Philip Thomson)²⁰⁾에 의한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는 첫째, 갈등·충돌·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으로 인한 부조화, 들쭉,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와 같은 갈등이나 대립을 수반한 희극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것, 셋째,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그리고 공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당면 현실이라는 사실, 넷째,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비정상성이다.

2) 그로테스크적 신체장식 표현의 외적 특성

(1) 비정상성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은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 일상상의 파괴, 성적 모호함의 비정상적인 외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림 13>은 등이 노출된 이브닝 드레스와 과거 하위문화의 공격적인 문신의 이질적 디자인 요소의 혼합에 의한 비정상성을 보여 준다. 또한 그로테스크는 성에 대해 억눌러 왔던 진실의 또 다른 부분을 다루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일종의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현대 신체장식에서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은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의 혼재에서 더욱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18) 하버트 리이드, *디자인론*, 정시화 역 (서울: 미진사, 1982), p. 49.

19) 파다웅 : 버마 고지대의 카렌 부족 가운데 파다웅파는 파다웅이라는 낯선 목걸이를 어릴 때부터 끼기 시작한 다. 이런 관습은 인위적으로 여성의 목을 길게 늘이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여인의 긴 목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긴다.

20) Philip Thomson, *그로테스크*, 김영무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p. 27-36.



<그림 13> 이질적 디자인 요소에 의한 비정상성.



<그림 14> 양성적 이미지의 신체장식.

(2) 혐오스러운 동물 이미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에는 사실적·공상적 이미지가 상호 공존하는 혐오스러운 동물의 이미지가 표현된다. 즉, 혐오스러운 동물의 얼굴, 동물문양의 프린트, 깃털, 파충류의 껍질, 뼈, 뿔 등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혐오동물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동물의 원초적 본능을 드러내어 신비롭고 야수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혐오스러운 동물 이미지의 신체장식이 원시에는 힙과 용기의 과시,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의 소외와 억압 속에서 탈피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신체 왜곡이나 변형

그로테스크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왜곡과 변형, 과도한 과장의 특징을 갖는다. 왜곡의 그로테스크적 신체장식은 상식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신체를 왜곡, 변형하거나 과도한 신체장식(그림 15), 인체 일부분의 비정상적인 과장, 지나친 노출 등으로 인체를 기괴하게 변형시킨 것에서 보여진다. 이러한 신체의 왜곡으로 인한 신체장식은 조화롭지 못한 외형적 특성으로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3) 그로테스크적 신체장식 표현의 내적 의미

(1) 원시성 추구

물질문명의 발달로 야기된 인간성 소외의 모순 속에서 현대인들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원시예의 향수와 자연으로의 회귀를 동경하게 되었다.

현대 패션에서의 원시성은 장식적인 성향과 자연 그대로의 솔직성을 추구하던 원시인들이 지닌 풍습과 문화를 표현의 대상으로 하여 강렬한 원색의 원시적인 색채나 자연 요소적 문양을 사용하거나 소재로서 나무껍질, 동물의 뼈나 뿔, 털, 새의 깃털, 들 등의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그림 15> 과도한 신체 장식에 의한 신체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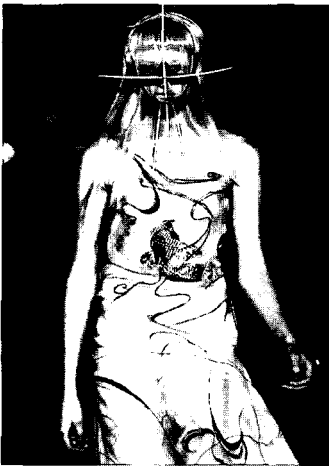
이러한 원시적인 신체장식의 표현을 통해 지적 문명에 따르는 과도한 기술성과 기계적 성격에서 탈출해 자연, 인간, 복식이 하나됨을 느끼도록 함은 물론 생명력, 원시성 그리고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순수한 자연에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2) 이국취향

현대는 시대, 지역, 인종, 성이라는 틀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함께 뒤얽혀 혼성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에 의한 탈 공간 현상으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각 민족 특유의 민속 복식 양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지구 곳곳의 고유한 민속 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보이며 패션에서의 이국취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의 이국취향은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아시아 등 지역의 민족적 특성을 차용한 에스닉 스타일로 나타난다.²¹⁾ 이러한 민족적 특성의 표현은 피상적인 이미지 표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을 바탕으로 문양, 색채, 세부적 장식 요소의 직·간접적인 표현으로 강한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그림 16〉은 시-쓰루 소재의 가슴부위에 잉어 문양이 있고 얼굴에 원시 부족 피어싱 모형의 간접적 피어싱을 하고 있다. 잉어는 용문양과 함께 동양의



〈그림 16〉 잉어문양의 시-쓰루 룩.

대표적 문양으로 문신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수와 인내심과 용기, 이득과 의지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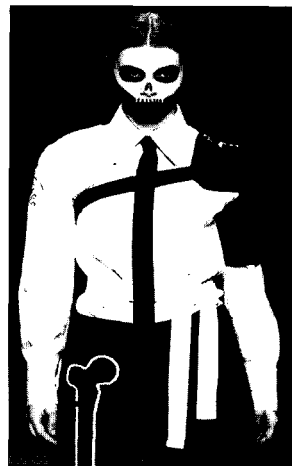
(3) 유희성 추구

그로테스크적 신체장식 표현은 또한 극단적인 요소를 통해 풍자적이고 조소에 찬 해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익숙하지 못했던 현실의 숨겨진 이면을 충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삶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로테스크에 내재된 웃음의 특성은 '공포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처럼 유희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스러운 것이다. 즉,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스러운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림 17〉은 얼굴에 혐오스러운 해골 메이크업을 하고 다리부위의 뼈 문양과 넥타이, 어깨의 견장 등 이질적인 요소들의 충돌로 혐오스러운 느낌과 더불어 충격적인 웃음을 선사한다.

(4) 저항 의미

다양한 한계집단, 소수집단, 지향집단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반 패션은 물질문명의 고발, 인간성 회복, 진정한 자아의 모색 등 저항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저항 문화인 반 패션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물개성적인 획일화된 스타일을 거



〈그림 17〉 이질적 요소의 충돌에 의한 유희성 추구.

21) 송명진, 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복식 18호 (1992), p. 295.



〈그림 18〉 과도한 신체장식.

부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풍부한 감성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며 그 집단의 정체성과 통합성,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18〉은 노출된 신체부위에 유두 피어싱과 문신 등 과도한 신체장식을 한 반 패션 스타일로 획일화된 스타일을 거부하고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2. 에로틱

1) 에로티시즘의 개념

에로틱이란 에로티시즘에서 왔으며 에로티시즘의 어원은 성적사랑(性愛)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의 ‘에로스’(Eros)이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갈망인 동시에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한 정신적인 갈망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갈망은 항상 만족과 불만족, 지향과 좌절, 생의 애착과 죽음에 대한 동경, 적극적인 노출과 소극적인 은폐, 승화된 표현 행동과 카오스적 질서 파괴 행위 등과 같은 이중성으로 표현된다.²²⁾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어 이러한 성적 본능은 인간의 여러 예술활동에 승화된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났다. 복식에서 에로티시즘은 시대에 따른 육체의 이상미와 부합되도록 인체를 복식

으로 은폐, 노출시킴으로써 보이고자 하는 욕구와, 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과장 또는 확대와 밀착으로 표현되는 나르시즘(Narcism)의 현상과 상징물에 대한 주술적인 매력과 숭배를 나타내는 페티시즘(Fetishism), 성애의 대상에 대한 도착 등을 나타내는 세디즘(Sadism)과 매저키즘(Masochism)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현대 에로티시즘은 개인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삶에 활력을 주는 성적인 자유의 표출로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면서 물질분명에 소외 당한 인간의 정서를 대중의 감각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2) 에로틱 신체장식 표현의 외적 특성

(1) 신체 노출

현대 패션은 자기 표현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의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신체 노출을 통하여 표현되며 노출된 신체를 장식함으로서 에로티시즘을 나타낸다.

현대복식에 나타난 신체 노출과 관련하여 루디 건릭(Rudi Gemreich)은 “앞으로는 피부 그 자체가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고 하여 신체 자체를 미의 소재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²³⁾ 복식에서 신체 노출은 노출의 방법이나, 노출하는 신체부위, 노출된 면적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갖는다. 예를 들어 〈그림 19〉는 노출된 목 부위에 꽃무늬의 문신을 장식함으로써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목은 허리와 함께 에로틱한 신체부위로 간주되고 꽃은 여성, 특히 ‘처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물의 생식기, 즉 자궁에서 생식을 이루는 여성 생식기를 상징하기도 하며 관능적인 유혹을 상징한다.

(2) 시·쓰루

현대 패션은 인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옷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패션을 위한

22) 전해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 8.

23)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0), pp. 140-141.



〈그림 19〉 노출 부위의 문신.

수단으로 신체를 사용하기도 한다.²⁴⁾

시-쓰루는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의 투시효과를 표현하는 것인데, 신체를 가리는 동시에 드러내는 시-쓰루 룩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출된 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 연상을 통하여 성적 자극을 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시-쓰루 룩에 사용되는 소재에 원시시대의 신체장식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문양이나 소재가 도입되면 그 독특한 형태와 장식성으로 시-쓰루를 통한 신체장식은 노출된 신체부위의 직접적 장식보다 더 강한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20〉은 나체가 거의 드러나는 시-쓰루 룩으로, 보여주기 위한 은폐이며 전체적인 시-쓰루 소재의 모티브로 인해 신체에 문신을 한 효과를 나타내며 성기 부위의 은폐는 오히려 시선을 더욱 집중시킨다.

(3) 바디 컨셔스

바디 컨셔스는 인체에 밀착되는 형태로 나체를 연상하게 하며 신체적 특징을 강조한다. 이러한 바디 컨셔스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 줌으로써 성적 특성을 강조하여 에로티시즘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바디 컨셔스는 인체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인체의 선을 나타내는 바디 컨셔스에



〈그림 20〉 성적 부위를 강조한 시-쓰루.

원시시대 신체장식에 사용되었던 문양과 소재를 응용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시술한 듯한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 21〉의 바디 컨셔스의 문양은 마치 피부에 직접 행한 문신의 효과를 내고 있다.

(4) 앤드로지너스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으로 양쪽 성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나타나는 자유로운 감성의 정신적인 변으로 복식에서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나타난다.²⁵⁾ 이것은 양성적인 것 외에 중성적인 이미



〈그림 21〉 바디 컨셔스에 의한 장식 효과.

24) *Ibid.*, p.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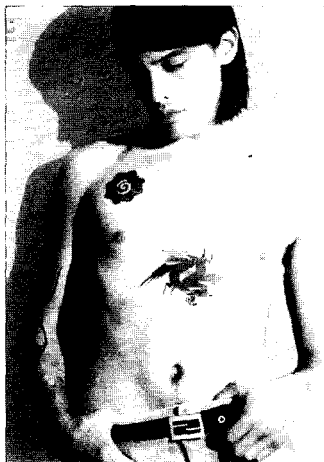
25) 김경옥, 금기숙,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호 (1998), p. 241.

지를 나타내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이성의 단품이나 소품의 사용, 이성적 이미지의 디자인 요소 이용, 중성적인 메이크업과 이성의 헤어스타일 보방,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복식 코디네이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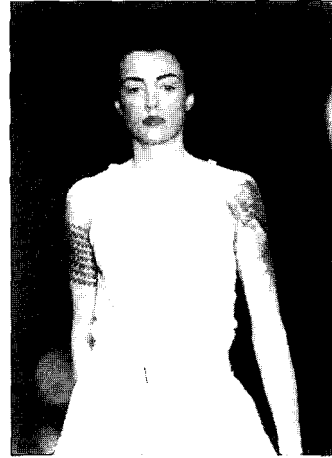
또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페티시즘으로 인한 성적 만족, 동성이나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의 기능을 수행하며 규제된 성적 규범에서 벗어난 양성적 특성을 혼합하고 절충시킨 자신의 정체성 표출로 나타나고 있다.²⁷⁾

따라서 현대 패션에 있어서 앤드로지너스 룩은 자유로운 감성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고 시대적 이상미와 세계화, 다원주의 등 국제적인 환경에 맞는 이상적인 인간형의 표현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²⁸⁾

그림 22)는 상의를 벗은 남성의 가슴 부위에 문신을 한 것으로 가슴은 여성의 성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심벌 중의 하나로 에로틱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23>은 슬리브리스 상의를 착용한 남성적 이미지의 여성으로 양팔의 넓은 부위에 문신을 새겨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건강한 팔은 강력한 남성의 상징이며 문신이 새겨진 팔 또한 남성적인 힘과 용기를 상징한다. <그림 24> 또한 피어싱,



<그림 22> 에로틱 이미지의 앤드로지너스



<그림 23> 남성적 이미지의 앤드로지너스.



<그림 24> 여성적 이미지의 앤드로지너스.

귀걸이와 목걸이, 화장 등 과도한 장식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한 남성으로 앤드로지너스의 특성을 나타낸다.

3) 에로틱 신체장식 표현의 내적 의미

(1) 자아 도취

인간은 에로스를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한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보다 완전

26) Ibid., p. 244.

27) 오승혜,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Fusion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58.

28) 김경옥, 금기숙, *Op. cit.*, pp. 256-259.

하게 해보려는 충동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을 보다 아름답게 장식하려 하고 이것은 나르시즘적 표현의 자아노취 성향으로 나타난다.

나르시즘은 자기의 육체를 마치 성의 대상처럼 다루어서 성적 쾌감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며, 어루만지며, 애무하여, 마침내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1899년 폴 나크(Paul Nacke)가 사용한 말로서 프루겔은 나르시즘을 자신의 나체에 대한 자량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⁹⁾ 그는 또 여성의 나르시즘과 노출증은 대체로 복식에 반영되고 장식이 많은 여성의 복식 또한 자기도취적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은 여성의 복식을 더욱 장식적이고 에로틱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현대 패션의 신체장식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다.

(2) 자연주의

자연주의란 자연대상을 양식화하거나 어떤 관념적 표현을 행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히 재현하려는 태도이며³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적 위기로 인하여 인위적이며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순수성과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주의에의 관심은 현대에 가중되고 있는 인간성 상실, 전쟁과 테러, 경제불황 등 사회적 불안 요소로 인해 어떤 구속, 기준, 형식도 거부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원초적인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욕구의 표현이다.

현대 패션의 자연주의적 요소는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체 자체의 미를 추구하거나, 여성 인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살리는 형태로 표현되며 여기에 원시시대의 신체 장식적 표현을 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요소를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나체를 연상시키는 신체 장식적 표현은 에로티시즘의 발현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로부터 도피하여 원초적인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정신의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성적 쾌락

현대인들은 일상적인 삶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일탈해 비합리적인 감성적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전통적인 미적 규범과 상반되는 기법으로 인한 기대의 전복과 유머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유머는 카타르시스와 더불어 쾌락을 제공한다.

에로틱 이미지는 이성의 매력과 성적인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데 특히 신체를 이용한 표현은 페티시적 에로틱 이미지를 보인다.

페티시즘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무성의 물체를 사용할 필요를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³¹⁾ 이처럼 일종의 병적 현상으로 간주되던 페티시즘은 오늘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과거의 이원적인 성의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일탈적인 성까지도 수용하며 인정하는 개념으로 변화³²⁾ 되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점차 가시화 되고, 페티시즘과 관련된 대상, 이미지가 스타일 요소로서 대중 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림 25)의 여성의 성기 부위로 향하는 화살표



〈그림 25〉 바다 컨서스에 의한 페티시적 에로틱 이미지.

29) 홍경미,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11.

30) 이경아, 전해정,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호 (1998), p. 257.

31) 이승은, *Op. cit.*, p. 57.

32) Jeffrey Weeks, *섹슈얼리티*, 서동진 외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7), pp. 106-115.

형태의 바디 컨셔스는 나체에 문신을 한 효과를 내며 시선을 성기 부위로 유도하면서 페티시적 에로틱 이미지를 나타낸다.

V. 결 론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장식해 왔으며 이러한 신체장식은 인간의 미적 욕구에서 비롯되며 개인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반영으로서 각 시대에 따른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바약적으로 발달된 현대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들은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원시로 회귀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도 반영되어 현대 패션에 원시적인 신체장식이 도입되어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원시 신체장식이 재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인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의식 변화, 다문화 현상, 신자연주의, 개인 취향의 존중,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현대 패션에서 신체장식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것의 재현이 아니라 원시 신체장식의 문양과 형태 등의 요소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에 직접 행하는 방법인 문신, 피어싱, 헤너, 베이크업과 바디페인팅의 직접적 표현과 시-쓰루(see-through) 룩, 바디 컨셔스(Body-conscious) 룩, 악세사리의 사용에 원시 신체장식의 문양과 형태의 특성을 응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간접적 표현 방법으로 나타났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장식 표현은 그로테스크 이미지와 에로틱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로테스크적 신체장식 표현의 외적 특성은 비정상성, 혐오스러운 동물 이미지, 신체왜곡이나 변형이며 원시성 추구, 이국 취향, 유희성 추구, 저항 의미의 내적 의미를 가진다. 에로틱한 신체장식 표현의 외적 특성은 신체 노출, 시-쓰루, 바디 컨셔스, 엔드로지너스이며 자아 도취, 자연주의, 성적 쾌락의 내적 의미를 가진다.

이상의 연구에서 현대 패션에 재등장한 신체장식은 인체에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외복이

며 패션의 조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신체장식은 패션 이외에 예술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물질 문명과 불안한 시대에 사장되어 가는 인간의 정신을 일깨워 주며 현대인의 개성과 감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장식 표현은 패션을 비롯해 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현대 패션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 패션의 중요한 코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호.
- 김희숙, 이은임 (1996). *베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1). 서울: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1991).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까치.
- 송명진, 양숙희(1992).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 취향에 관한 연구." 복식 18호.
- 오승혜 (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Fusion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희선 (2000).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 유영옥 (1994). *복식의장학*. 서울: 수화사.
- 윤정혜, 유영선 (2001). "복식에 나타난 타투 룩(Tattoo Look) 패션의 표현 특성." 복식 51권 3호.
- 이거룡 (1999).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서울: 한길사.
- 이경아, 전해정 (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호.
-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봉덕 (200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은 (2000).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

- 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 (1999).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4호.
- 전혜정 (1993).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화 (1988).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최수아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2호.
- 홍경미 (2001).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bin, Victoria (1988). *신체장식*, 임숙자 역. 서울: 경춘사.
- Hofstede, Geert (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나은영 역. 서울: 학지사.
- Read, Herber (1982). *디자인론*, 정시화 역. 서울: 미진사.
- Thomson, Philip (1986). *그로테스크*, 김영부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Weeks, Jeffrey (1997). *섹슈얼리티*, 서동진 외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